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Four Asian Countries)

조 영 조¹⁾, 하 규 수²⁾*

(Cho Young Jo and Ha Kyu Soo)

요 약 본 논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들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개인특성 요인을 규명하고,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창업자신감, 창업선호도, 성취욕구, 실패두려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사회적인식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자신감 및 창업선호도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취욕구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핵심주제어 : 창업의도, 개인특성, 창업선호도, 창업자신감, 성취욕구, 실패 두려움, 사회적 인식, 조절효과, 국제 비교연구, 대학생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vide Economic Implications to Activate College Start-ups by Performing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 Elements that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is Investigation Employe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Preference, Desire of Achievement, and Fear of Failure as Personality Characteristic Factors. Furthermore, Social Perception was used as the Moderating Variable. The Result Shows tha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Preference had a Positive Effect, while fear of Failure had a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oreover, Desire of Achievement did not have any Effects.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erception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hows that the Moderating Effect did not Appear.

Key Words : Entrepreneurial Intenti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Preferenc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esire of Achievement, Fear of Failure, Social Perception, Moderating Effect, Comparative Study, University Students

* Corresponding Author : ksh@hoseo.edu

Manuscript received Aug. 10, 2017 / revised Oct. 12, 2017 /
accepted Oct. 27 2017

1) 한국수출입은행, 제1저자

2)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신저자

1. 서 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4월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다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업력 3년 미만의 신생 기업이 전체 취업자 중 4~12%를 고용하는 등 창업기업이 뛰어난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이고 있다[30].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학력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24].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들에 관하여 잠재적 창업가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비교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각 나라별로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개인특성 요인을 규명하고,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특성과 창업의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개인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국제 비교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 소재국가인 일본, 중국, 홍콩을 선택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특성이 서로 달라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비교 연구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도

창업의도란 'Entrepreneurial Intention'이라는 학술적 용어를 번역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창업의지, 창업의향, 창업의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장래의 의도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6].

창업의도는 장래에 기업가(entrepreneur)로서 일할 의도를 의미한다[36]. 창업의도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creating a new venture)하거나 이미 설립된 벤처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creating new values)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창업의도는 창업행위의 전조(precursor)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28], 창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22].

2.2 창업가의 개인특성

창업가는 창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창업가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Morris and Lewis[29]는 혁신성(innovation), 위험감수성(risk-taking), 사전 대응능력(proactiveness)을 창업가적 태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Hmieleski and Corbett[13]은 자신감(self-efficacy), 불확실성 수용력(tolerance for ambiguity),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Ferreira et al.[8]은 내적 통제성(internal locus of control), 위험 감수성, 자신감(self-confidence), 성취욕(need for achievement), 불확실성 수용력, 혁신성 등의 심리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Gartner[9]는 벤처 창업에 있어서 개인특성 관련 변수로 내적 통제성, 성취욕, 위험 감수성, 경력(previous work experience), 직업 만족도(job satisfaction), 창업가 부모(entrepreneurial parents), 교육, 연령을 들고 있다. Koh[23]에 따르면, 창업 성향은 위험감수성, 성취욕, 불확실성 수용력 및 혁신성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창업을 할 것이지, 말 것인지는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개인특성은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자신감, 창업선호도, 성취욕구, 실패의 두려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1 창업자신감

창업자신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은 Boyd and Vozikis[2]가 창업자신감이 강할수록 창업의도도 강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데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자신감이 창업의도 및 창업행위(entrepreneurial actions or behaviors) 개발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Wilson et al.[34]에 따르면 창업자신감은 창업의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하며, Chen et al.[4]은 창업자신감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자신감을 자기권능감, 자기효능감, 자아효능감, 자기유능성, 자기유능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박재환·최민정[34]은 창업자신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유봉호[42]는 창업자신감은 창업성공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2.2 창업선호도

대학생들이 창업을 직업으로 선호하는지 여부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창업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Shapero and Sokol[38]에 따르면, 욕구 인지(perception of desirability)는 창업 전망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뜻하며, 이 인지된 욕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4]. 서정해[37] 연구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대학생들은 기업가를 유망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는 18~64세 인구 중에서 창업을 직업으로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창업선호도(entrepreneurship as a desirable career choice)를 측정하고 있다[19].

2.2.3 성취욕구

성취욕구는 기업가 특성 연구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 개념의 하나이며, 창업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7]. Ferreira et al.[8]는 다양

한 개인특성 중에서 자신감과 성취욕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avidsson[7]은 일반적 태도(general attitudes) 요인 중에서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범성[20]은 성취욕구는 창업의도, 창업 여부 및 창업성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정연우·반성식[16]은 창업가 개인특성인 성취욕구, 자신감, 내적통제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2.2.4 실패의 두려움

우리나라는 실패의 두려움(fear of failure)이 창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서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창업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순히 기업 파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패가망신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창업 실패의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負)의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결과는 여러 건이 보고되어 있다[12, 33]. 사업실패 두려움이 없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1].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클 경우에는 창업의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3 사회적인식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2016년 12월 현재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 청년(만 19~39세) 창업자 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청년 창업에 부정적(51.5%)이며, 청년 창업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 개선이 필요(59.3%)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우[18]에 의하면, 사회적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기업가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창업을 저해할 것이다[43]. 반면에 기업가에 대한 사회의 우호적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업을 유도할 것이다[10]. 창업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분위기는 창업 활성화 계기로 작용하나, 부정적 분위기는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1].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인식을 주로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박경석[35]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을 뜻하는 ‘사회적지지’가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현숙·백민정[25]은 창업에 대한 주변인들의 생각을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잠재적 창업가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인특성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은 물론,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특성을 독립변수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적인식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의 하위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변수들인 창업자신감, 창업선호도, 성취욕구, 실패의 두려움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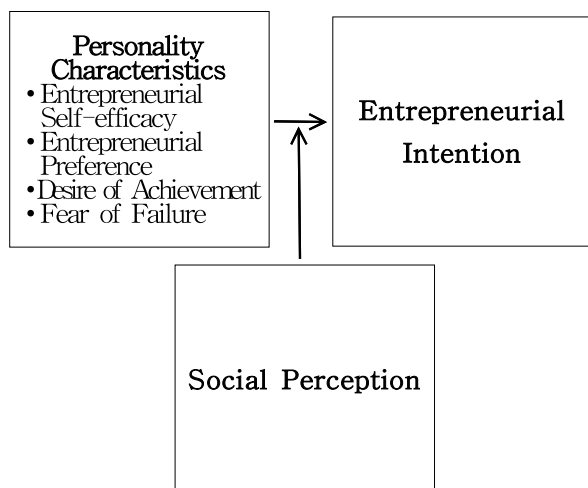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한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일본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홍콩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한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중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일본 대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홍콩 대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창업의도’는 장래에 기업가로서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 또는 계획을 의미하는 뜻으로 정의하고, 이현숙·백민정[25], 정연수·조성의[15], 이지우

[26], Liñán and Chen[27]의 연구를 참조하여 6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창업선호도’는 창업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평가하려는 잠재적 창업가의 경향으로 정의하고, Davidsson[7]의 신념(conviction) 및 사회적 기여(societal contribution)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여 7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창업자신감’은 잠재 창업가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성공에 대한 확신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진주형·박병진[17], 이현숙·백민정[25], Cassar and Friedman[3], 정연우·반성식[16], 윤방섭[43], 이지우[26]를 참조하여 7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성취욕구’는 잠재 창업가가 느끼는 목표 성취감, 성공 욕구, 난관 해결 의욕으로 정의하였으며, 홍정표·양해술[14], 이지우[26], 정연우·반성식[16], Davidsson[7]의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에 관한 문항을 참조하여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실패의 두려움’은 창업에 뒤따르게 되는 재정적 두려움, 가족 및 경력 관련 두려움, 정신적 두려움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오상훈[32], 하규수·윤백중[12]이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8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인식’은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홍정표·양해술[14], 윤방섭[43]을 참조하여 5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내용은 한국어로 고안된 것을 일반인이 이해 가능한 수준의 영어로 번역하였고, 이를 다시 중국어 및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 의해 각각 번역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학생 각 10명에게 설문지를 사전 조사한 결과, 이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설문지는 한국의 4개 대학 240명, 중국의 3개 대학 180명, 일본의 3개 대학 300명, 홍콩의 2개 대학 120명 등 총 4개국의 12개 대학 840명 대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표본 샘플링시 학과 및 창업교육 이수 여부 등 통제된 사항은 없었다. 설문지는 721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분석에 부적절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95부를 활용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286명(41.2%), 남성 409명(58.8%),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167명(24.0%), 20세~25세 미만 386명(55.6%), 25세 이상 142명(20.4%), 학년별로는 1학년 158명(22.7%), 2학년 148명(21.3%), 3학년 193명(27.8%), 4학년 196명(28.2%)으로 나타났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고유치(eigen value) 1.0이상,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0.5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 0.6이상의 값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특성을 측정하는 29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4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이상으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6.370%였고 신뢰계수는 0.8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사회적인식을 측정하는 5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에서는 Table 2와 같이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치 3.056, 분산 61.116%, 신뢰계수 .84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관한 6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에서는 Table 3과 같이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치 4.268, 분산 71.140%, 신뢰계수 .913으로 나타났다.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 factor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 have sufficient skill to run my own business.	.889	5.853	20.183	.956
	I am capable of starting a business with my own competence.	.875			
	My entrepreneurial skills are superior than those of peers.	.853			
	I have sufficient knowledge to run my own business.	.849			
	I am confident that I can successfully run my own business.	.835			
	I am certain that I will succeed as an enterpriser.	.828			
	I have enough capability to start a business.	.815			
Fear of Failure	I am afraid that I might never be able to get back on my feet if I fail.	.838	5.120	37.838	.913
	I have big fears of failing in business.	.829			
	I am afraid of the pressure of career loss if I fail.	.829			
	I am afraid of losing self confidence after a failure.	.804			
	I am afraid of suffering continuous call up of debt by creditors.	.795			
	I am afraid that I will lose investment funds when I fail in business.	.787			
	I am afraid of breaking my family's harmony due to my business failure.	.739			
I believe that a failed businessman is equal to a failed man in life.	.660				
Desire of Achievement	I have an attitude to successfully solve a task assigned to me, even if it may be difficult.	.800	4.317	52.723	.889
	I set goals to succeed, and do my best to achieve the goal	.789			
	I always want to resolve a task even if it is a difficult one.	.772			
	I have a strong desire to succeed.	.770			
	I always want to develop a way to complete a task in a better way for any tasks.	.763			
	I regard the sense of goal accomplishment important.	.714			
	I wish to be better at everything than others.	.708			
Entrepreneurial Preference	Becoming a businessman will bring me great satisfaction.	.789	3.957	66.370	.877
	I admire enterprisers.	.771			
	I believe starting a business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gain wealth.	.742			
	Entrepreneurship should be respected,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708			
	I believe starting a business is the best way to gain social status.	.681			
	I want to become a great enterpriser.	.644			
	I prefer running my own business over working life.	.585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social perception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Our countrymen respect enterprisers very much.	.796	3.056	61.116	.841
Our country has a very good condition for start-up businesses.	.793			
Our countrymen are very positive about creating a business.	.779			
Enterprisers are well treated in our country.	.772			
Our country's media shows a high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770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I am currently writing a detailed business plan to start a business.	.889	4.268	71.140	.913
I have a definite plan to start a business in the close future.	.879			
I have collected start-up information several times.	.875			
I am currently receiving advice and consultation for starting my business.	.867			
I have thought specifically about investment funds.	.843			
I want to start my own business some day.	.691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개념의 하위요인별로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개국 전체 대학생의 경우, 개인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의 평균은 창업자신감 2.258, 실패두려움 3.272, 성취욕구 3.691, 창업선호도 3.062로서 성취욕구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또한 사회적인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result

		Total			ROK			China			Japan			Hong Kong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PC	ES	695	2.258	.930	200	2.563	.814	147	2.632	.872	255	1.730	.829	93	2.462	.865
	FF	695	3.272	.865	200	3.211	.833	147	3.263	.706	255	3.379	.992	93	3.128	.755
	DA	695	3.691	.670	200	3.766	.558	147	3.651	.651	255	3.587	.795	93	3.879	.465
	EP	695	3.062	.817	200	3.139	.771	147	3.274	.768	255	2.791	.819	93	3.307	.778
	SP	695	2.983	.715	200	2.858	.651	147	3.487	.671	255	2.761	.673	93	3.065	.621
	EI	695	2.175	.915	200	2.243	.832	147	2.528	.924	255	1.811	.895	93	2.468	.769

PC:Personality Characteristics / ES: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FF:Fear of Failure / DA:Desire of Achievement / EP:Entrepreneurial Preference / SP:Social Perception / EI:Entrepreneurial Intention

식의 평균은 2.983, 창업의도의 평균은 2.1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개념의 하위요인들 간의 방향성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개국 전체 대학생의 경우 창업자신감은 실패두려움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욕구는 창업선호도, 사회적 인식, 창업의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229에서 .696 사이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sult

	1	2	3	4	5	6
1.ES	1					
2.FF	-.229***	1				
3.DA	.223***	.097*	1			
4.EP	.546***	-.026	.335***	1		
5.SP	.412***	.024	.279***	.421***	1	
6.EI	.696***	-.186***	.132***	.510***	.338***	1

* $p < .05$, ** $p < .01$, *** $p < .001$

4.4 가설 검증

4.4.1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개인특성의 하위요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대학생의 경우, 1단계 모형은 $F=18.188$,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성별($t=3.967$, $p < .001$), 건강상태($t=3.331$, $p < .01$), 창업경험($t=6.738$, $p < .001$)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단계 모형은 $F=69.871$,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창업자신감($t=10.263$, $p < .001$) 및 창업선호도($t=6.228$, $p < .001$)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실패두려움($t=-2.042$, $p < .05$)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 대학생의 결과에서 1단계 모형은 창업경험($t=5.113$, $p < .001$)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단계 모형은 창업자신감($t=4.967$, $p < .001$) 및 창업선호도($t=2.802$, $p < .01$)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 대학생의 결과에서 1단계 모형은 성별($t=4.856$, $p < .001$) 및 창업경험($t=2.216$, $p < .05$)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단계 모형은 창업자신감($t=4.672$, $p < .001$)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 대학생의 결과에서 1단계 모형은 성별($t=2.353$, $p < .05$) 및 창업경험($t=3.986$, $p < .001$)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단계 모형은 창업자신감($t=8.159$, $p < .001$) 및 창업선호도($t=4.911$, $p < .001$)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홍콩 대학생의 경우 1단계 모형은 성별($t=2.476$, $p < .05$) 및 창업경험($t=2.954$, $p < .01$)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단계 모형은 창업선호도($t=2.964$, $p < .01$)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실패두려움($t=-2.314$, $p < .05$)이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하위가설인 1-1, 1-2, 1-3, 1-4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4.2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개인특성의 하위요인과 사회적인식을 투입하였고, 2단계 모형에서는 개인특성 및 사회적인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하였다. 또한, 2단계 모형에서 투입한 상호작용항 중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 사회적인식의

Table 6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vironmen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V \ IV	Total				ROK				China				Japan				Hong Kong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DC	Gender ¹⁾	.144	3.967***	.053	2.059*	.105	1.484	.082	1.561	.412	4.856***	.118	1.776	.143	2.353*	-.024	-.575	.248	2.476*	.065	.703
	Age	.104	1.922	-.013	-.334	.085	.912	.039	.573	-.135	-1.124	-.108	-1.207	.046	.504	.027	.439	-.072	-.594	.030	.268
	Grade	-.014	-.256	-.018	-.471	-.101	-1.137	.030	.455	.003	.026	-.095	-1.066	-.071	-.780	-.042	-.678	.042	.337	-.027	-.241
	HS	.122	3.331**	.051	1.884	-.042	-.629	-.086	-1.766	.039	.504	-.133	-2.278*	.088	1.429	.009	.221	-.061	-.618	-.022	-.235
	EF ²⁾	.247	6.738***	.073	2.763**	.344	5.113***	.118	2.198*	.174	2.216*	.035	.605	.244	3.986***	.016	.375	.297	2.954**	.209	2.301*
PC	ES			.402	10.233***			.369	4.967**			.421	4.672**			.463	8.139***			.183	1.415
	FF			-.054	-2.042*			-.041	-.698			-.050	-.862			-.053	-1.195			-.215	-2.314*
	DA			-.053	-1.935			-.070	-1.315			.091	1.156			-.049	-1.081			-.072	-.776
	EP			.201	6.228***			.189	2.802**			.073	1.075			.257	4.911***			.325	2.964**
F		18.188***		69.871***		6.709***		19.745***		6.104***		16.941***		4.787***		29.000***		3.152*		5.007***	
R ²		.117		.572		.147		.580		.178		.623		.088		.610		.153		.452	
ΔR^2				.455				.433				.445				.522				.299	

* $p < .05$, ** $p < .01$, *** $p < .001$, Gender(Female=0, Male=1), EF(None=0, Yes=1)

DV: Dependent Variable / IV: Independent Variable / D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HS: Health State / EF: Experience of Foundation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은 $F=65.323$,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2단계 모형은 $F=42.589$,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창업자신감($t=10.301$, $p < .001$), 창업선호도($t=6.575$, $p < .001$)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는 없다고 하겠다.

한국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은 $F=18.515$,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2단계 모형은 $F=13.156$,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창업자신감($t=4.623$, $p < .001$), 창업선호도($t=2.901$, $p < .01$)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로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는 없다고 하겠다.

중국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은 $F=15.640$,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2단계 모형은 $F=11.624$,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창업자신감($t=4.608$, $p < .001$)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에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는 없다고 하겠다.

일본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은 $F=27.521$,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2단계 모형은 $F=18.635$,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창업자신감($t=8.459$, $p < .001$), 창업선호도($t=5.160$, $p < .001$)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창업자신감과 사회적인식의 상호작용항($t=2.377$, $p < .05$)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창업자신감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erception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vironmen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V	DV	Total				ROK				China				Japan				Hong Kong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인구통계학적특성	Gender ¹⁾	.048	1.841	.053	2.017*	.068	1.281	.080	1.508	.114	1.696	.111	1.643	-.034	-.795	-.012	-.268	.065	.694	.124	1.317
	Age	-.016	-.404	-.018	-.461	.041	.603	.034	.518	-.108	-1.208	-.160	-1.791	.022	.365	-.014	-.227	.030	.265	.026	.221
	Grade	-.016	-.410	-.018	-.461	.034	.514	.011	.172	-.096	-1.076	-.092	-1.041	-.043	-.702	-.027	-.448	-.027	-.240	-.058	-.509
	HS	.049	1.838	.056	2.069*	-.088	-1.808	-.092	-1.848	-.137	-2.301*	-.141	-2.418*	.002	.056	.020	.476	-.022	-.231	-.046	-.472
	EF ²⁾	.073	2.751**	.063	2.358*	.113	2.104*	.101	1.887	.034	.591	.030	.539	.010	.237	.005	.124	.208	2.223*	.219	2.228*
개인특성	ES	.403	10.315***	.406	10.301***	.383	5.105***	.344	4.623***	.418	4.607***	.421	4.608***	.461	8.179***	.482	8.459***	.183	1.405	.254	1.819
	FF	-.050	-1.903	-.045	-1.665	-.035	-.594	-.050	-.850	-.052	-.883	-.068	-1.144	-.036	-.798	-.007	-.136	-.214	-.238†	-.162	-.162
	DA	-.051	-1.856	-.054	-1.862	-.066	-1.249	-.064	-1.117	.092	1.168	.076	.970	-.048	-1.063	-.057	-1.212	-.072	-.771	-.127	-1.330
	EP	.211	6.443***	.217	6.575***	.191	2.839**	.194	2.901**	.082	1.135	-.022	-.287	.273	5.184***	.277	5.160***	.325	2.931**	.391	3.330**
	SP	.066	1.795	.050	1.328	.084	1.280	.124	1.851	.031	.376	.006	.067	.108	1.960	.084	1.496	.001	.009	.011	.081
	ES*SP			.091	1.940			.197	1.936			.165	1.278			.165	2.377*			.532	2.338*
	FF*SP			-.013	-.480			-.045	-.538			-.049	-.746			-.054	-.989			.039	.384
	DA*SP			.009	.295			.004	.054			.100	1.037			-.046	-.865			.028	.264
	EP*SP			.053	1.493			.066	.780			.161	1.794			.065	1.002			.190	1.394
	F	65.323***		42.589***		18.515***		13.156***		15.640***		11.624***		27.521***		18.635***		4.591***		3.702***	
	R ²	.574		.592		.584		.621		.624		.673		.616		.639		.452		.538	
	ΔR^2			.018				.037				.049				.023				.086	

* $p < .05$, ** $p < .01$, *** $p < .001$, Gender(Female=0, Male=1), EF(None=0, Yes=1)

홍콩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사회적 환경과 창업의도 간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모형은 $F=4.591$,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2단계 모형은 $F=3.702$,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창업선호도($t=3.360$, $p < .01$)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창업자신감과 사회적인식의 상호작용항($t=2.398$, $p < .05$)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창업자신감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홍콩 4개국 전체 대학생의 경우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본 및 홍콩 대학생의 경우에만 창업자신감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4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가별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창업자신감, 사회적인식 및 창업의도 요인에서 중국 대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의 경우 실패두려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창업자신감, 창업선호도, 사회적인식, 창업의도 요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홍콩 대학생의 경우 성취욕구 및 창업선호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중·일·홍콩 간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자신감, 사회적인식 및 창업의도 요인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창업지원 활동과 광대한 시장규모 및 전통적 황금 숭배 문화

로 인해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학생들에게서 실패두려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창업자신감 및 사회적인식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커뮤니티의 폐쇄성으로 인해 한 번의 실패로 커뮤니티에서 퇴출될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가업을 승계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 기인한다. 홍콩 대학생들의 창업선호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광범위한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5].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에 대하여 창업자신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학 교육 방법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학문적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에 치중하여 왔으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과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한 대학생들의 실무능력과 기술력을 배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둘째, 실패의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패로부터 얻는 소중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39]. 창업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행 용자 중심의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창업 실패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여 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가가 존경 받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 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의 일부 대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 비교연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 비교연구에 적합한 새

로운 연구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향후 좀 더 많은 샘플을 취득하여 조절효과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Bird, B.,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3, No. 3, pp. 442-453, 1988.
- [2] Boyd, N. G. and Vozikis G. S.,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No. 4, pp. 63-77, 1994.
- [3] Cassar, G. and Friedman, H., "Does Self-Efficacy Affect Entrepreneurial Investment?"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Vol. 3, No. 3, pp. 241-260, 2009
- [4] Chen, C. C., Green, P. G. and Crick, A.,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3, No. 4, pp. 295-316, 1998.
- [5] Cho, Y. J., "A Comparison Study Amongst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China, Japan and Hongkong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vironmen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oseo Venture University, 2016.
- [6] Cho, Y. J. and Lee, B. Y.,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1, No. 4, pp. 17-25, 2016.
- [7] Davidsson, P.,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 Intentions," Paper prepared for the RENT IX Workshop, Piacenza, Italy, Nov. 23-24, pp. 1-30, 1995.
- [8] Ferreira, J. J., Raposo, M. L., Gouveia Rodrigues, R., Dinis, A. and do Paco, A.,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9, No. 3, pp. 424-440, 2012.
- [9] Gartner, W. B.,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0, No. 4, pp. 696-706, 1985.
- [10] Gnyawali, D. R. and Fogel, D. S.,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No. 4, pp. 43-62, 1994.
- [11] Ha, K. S.,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m Business Attitude and Fear on Business Failure," *Korean Cooperation Management Review*, Vol. 19, No. 5, pp. 59-74, 2012.
- [12] Ha, K. S. and Yoon, B. J.,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8, pp. 3406-3414, 2011.
- [13] Hmieleski, K. M. and Corbett, A. C.,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44, No. 1, pp. 45-63, 2006.
- [14] Hong, J. P. and Yang, H. S.,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 141-157, 2014
- [15] Jeong, Y. S. and Cho, S. 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for New Business Startups: Implications for Education Program Design,"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8, No. 1, pp. 57-73, 2013
- [16] Jeong, Y. W. and Bahn, S. S., "A Study on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3, No. 1, pp. 45-67, 2008.
- [17] Jin, J. H. and Park, B. J.,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36, No. 4, pp. 101-123, 2014
- [18] Jun, S. W., "The Effect of Individualities, Environment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ship Inten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2009.
- [19] Kelley, D. J., Singer, S. and Herrington, 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1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London: London Business School, 2011.
- [20] Kim, B. S., "A Study on th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Focus on the Process Model,"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9, No. 1, pp. 119-152. 2012.
- [21] Kim, S. S.,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oseo Venture University, 2009.
- [22] Kim. S. U. and Lee. W. 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Leading Universities for Start-up Business Program," *The Journal of Internet*

-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Vol. 16, No. 6, pp. 155-172, 2016.
- [23] Koh, H. C., "Factors Associated with Entrepreneurial Inclination: An Empirical Study of Business Undergraduates in Hong Kong,"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Vol. 12, No. 2, pp. 29-41, 1995.
- [24] Krueger, N. F.,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No. 1, pp. 5-22, 1993.
- [25] Lee, H. S. and Baek, M. J.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Norm,"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Vol. 15, No. 2, pp. 65-84, 2012.
- [26] Lee, J. W.. "Individual Characteristic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22, No. 1, pp. 121-146, 2000
- [27] Liñán, F. and Chen, Y. W..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3, No. 3, pp. 593-617, 2009
- [28]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and Sequeira, J. M.,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3, No. 4, pp. 965-988, 2009.
- [29] Morris, M. H. and Lewis, P. S.,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29, No. 7, pp. 31-48, 1995.
- [30]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 Paris: OECD Publishing, 2015
- [31] OECD, *Trends in SME Performance and Business Conditions*, Paris: OECD Publishing, 2017.
- [32] Oh, S. H.,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Start-up Environments on Young Adults and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oseo Venture University, 2013
- [33] Oh, S. H. and Ha, K. S.,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8, pp. 143-157, 2013.
- [34] Park, J. W. and Choi, M. J.,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1, No. 2, pp. 9-19. 2016.
- [35] Park, K. S., "Impact of Korean-Chinese'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oseo Venture University, 2014.
- [36] Rantanen, T.,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in Uusimaa Region in Finl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Journal*, Vol. 2, No. 4, pp. 48-65,
- [37] Seo, J. H., "The Think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about an Entrepreneur in Korea, China and Japan,"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Vol. 43, pp. 153-172, 2006.
- [38] Shapero, A. and Sokol, L.,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Kent, C. A., Sexton, D. L., & Vester, K. H.(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2.
- [39] Shon, S. H. and Han, K. S., "An Analysis of the Whole Area of Business

Administration by the Characteristics in the Software Venture Business,"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0, No. 1, pp. 323-352, 2001.

- [40] Swanson, D. and Webster, L., Private Sector Manufacturing in the Czech and Slovak Republic: A Survey of Firm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2.
- [41] Wilson, F., Kickul, J. and Marlino, D.,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1, No. 3, pp. 387-406, 2007.
- [42] Yoo, B. H.,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Self-leadership on Start-up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5, No. 3, pp. 1382-1389, 2014.
- [43] Yoon, B. S.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 Business Review, Vol. 17, No. 2, pp. 89-110, 2004



조 영 조 (Cho Young Jo)

- 종신회원
- 경희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문학사
-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한국수출입은행
- 관심분야 : 벤처, 창업, 기술금융, 중소기업



하 규 수 (Ha Kyu Soo)

- 종신회원
- 미국 T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 (J.D)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벤처, 벤처경영, 경영전략